

淨影寺 慧遠사상의 연구

-- 《維摩詰所說經義記》를 중심으로 --

李丙旭

<목 차>

1 序言	3.1 緣起說
2 空·有·非有非無	3.2 無爲觀
2.1 空	3.3 인식과정
2.2 四句詎通	3.4 번뇌의 발생과 소멸
3 唯識사상	4 結語

1. 序 言

淨影寺 慧遠(523~592)은 地論宗 南道派에 소속된 인물이다. 지론종은 世親(AD 5세기중 인물)의 《十地經論》이 중국에 번역되자 즉시 이 경론을 중심으로 연구한 학파이다. 梁·陳·隋대에 특히 북쪽땅에서 번성하였다.

이 종파는 남북으로 나뉘었다. 勸那摩提(Ratnamati)와 菩提流支(Bodhi ruci 572~727)가 서로 견해를 달리해서 각기 《십지경론》을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남도파는 唐대에 화엄종과 합해졌고, 북도파는 석론종과 합해졌다가 뒤에 법상종에 포섭되었다.

지론종 남도파의 인맥을 살펴보면 혜광(光統律師)이 특나마제의 뒤를 이었다. 혜광은 특나마제와 보리유지의 번역본을 한 책으로 합본하였다. 그 문하에 法上(494~579)이 있었고, 법상의 제자가 혜원이다.

혜원의 현존하는 작품은 《涅槃經疏》10권 《雜摩經義記》8권 《無量壽經疏》2권 《觀無量壽經疏》2권 《溫塞經疏》1권 《起信義疏》4권 《十地論義記》7권(단, 현존본은 처음의 4권뿐이다) 《大乘義章》26권 《勝鬘經義記》3권(폐리오 돈황문서 가운데에서 下권의 부분이 발견되었다) 등 9부이다.

그의 남아있는 작품중에서 제목만으로도 그의 사상이 매우 푸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저서중 《유마경의기》에 주목해서 그의 사상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지하건대 《승만의기》 《열반의기》 《유마의기》의 저술순서를 밟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1) 그런 만큼 《유마경의기》의 사상적 비중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의 佛性觀을 살펴보겠다. 혜원 사상의 핵심은 불성에 있기 때문이다.

혜원은 불성을 네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佛因의 바탕이 불성이다. 이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다. 眞識心을 말한다. 둘째, 佛果의 바탕이 불성이다. 이는 수행하여 부처의 과보를 얻은 것이다. 法身을 말한다. 세째, 佛因과 佛果가 깨달음의 성품에서는 같은 것이 불성이다. 보리(麥)의 因과 보리의 果가 보리의 성품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다. 因과 果는 서로 달라도 그 성품의 바탕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상의 세 가지는 생명을 가진 중생에게만 통하지, 생명이 없는 중생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주관·객관으로 구분하면 주관에 속한다.

네째, 모든 존재의 바탕을 통털어서 불성이라 한다. 이 성품은 오직 부처라야 다 알 수 있다. 이 네번째 불성은 주관·객관으로 구분하면 객관에 속한다.²⁾

1) 慶造ト吉藏ノ 《勝鬘經》如來藏說ノ解釋ヲ メクツテ (印度學 佛教學研究 27권 2호)
1979. P108.

2) 二體義名性. 說體有四. 一佛因自體 名爲佛性 謂眞識心. 二佛果自體 名爲佛性 所謂法身.
第三通就佛因佛果 同一覺性 名爲佛性. 其獨世間麥因麥果 同一麥性 如是一切. 當知 是
性不異因果 因果恒別 性體不殊. 此前三義 是能知性 局就衆生 不通非情. 第四通說諸法

혜원의 불성은 心으로도 될 수 있고 物로도 될 수 있다. 네번째 불성의 정의는 物의 영역에 속한다. 이것을 2장에서 분석하겠다. 첫번째에 말한 眞識心은 心의 영역에 속한다. 이것을 3장에서 분석하겠다.

2. 空·有·非有非無

혜원은 진여법이 空·有·非有非無의 세 측면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空은 如라고 이름하고, 有는 法性이라 이름하고, 非有非無는 實際라 부른다. 진여법은 모습과 性을 떠났기 때문에 空이다. 모든 불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不空이다. 有와 無가 한 몸이기 때문에 非有非無이다.³⁾ 깨달은 이가 바라본 진실한 세계는 空·有·非有非無의 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⁴⁾

空은 일상인이 집착하는 대상을 신기루 같은 것으로서 부정하여야 할 것임을 뜻한다. 일상인은 금은보화따위의 탐나는 대상을 보고 듣고 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 그 결과 대상물을 얻었을 경우는 금방 만족치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못 얻었을 경우 슬퍼하고 한탄한다. 그런데 일상인이 인식하는 대상은 실재를 바로 본 것이 아니다. 일상인의 인식구조는 욕심 때문에 잘못 되어있다.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空의 가르침은 현재 일상인이 욕심을 가진 채, 보고 듣는 대로 대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일깨운다. 그 잘못된 인식구조가 바로 잡히면 마음은 자기 역량을 발휘하여 큰 자유와 큰 해방감을 느낀다.

自體 故名爲性 此性唯是諸佛所窮 就佛以明諸法體性 故云佛性 此後一義 是所知性 通其
其內外. (正義藏經 96권 《大乘義章》 〈佛性義〉 P. 678上).

3) 於眞法中 空名爲如 有名法性 非有非無 說實際. 眞云何空 罷相離性. 云何不空 具諸佛法
云何復名非有非無 有無同體. (正義藏經 27권 《雜摩詰所說經義記》 P. 614下)

4) 所順眞法 共此三門 同體義分 故得以法即如法性實際等也. (上同 P. 614 下 ~ P. 615上)

有는 空의 부정을 통한 有이다. 일상인이 집착하는 것같이 대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세계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욕심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는 그 대상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욕심을 버리고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대상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有이다. 금은보화는 일상인에게는 욕심의 대상이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깨달은 사람은 그런 금은보화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금은보화는 거기에 존재한다. 다만 보는 관점만이 바뀌었을 따름이다.

非有非無는 空에 집착함도 비판하고 有에 집착함도 비판한다. 空은 집착을 버리고 바로 보자는것인데 거기에 다시 휘말리면 이 또한 집착이다. 따라서 空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각은 버려야 한다. 有는 空의 부정을 통한 有인데 이 空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有에만 집착하면 이 것도 버려야 한다. 이 非有非無가 있기 때문에 空은 空의 역할을 다하고 有는 역할을 다한다.

2.1 空

혜원은 空을 다섯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첫째 비담종에서 말하는 空이다. 오음은 나의 것(我所)이 아니다.⁵⁾이 것이 空의 뜻이다. 물질대상과 육체·느낌·생각·지어감·의식은 나의 것이라고 할 만것이 없다. 모두 항상하지 못하여 변천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실종에서 空을 말하는데, 모든 대상은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니 거기에는 고정된 그 무엇인 가가 없다.⁶⁾ 이것이 空이다.

세째 妄相 때문에 생겨난 존재는 모습이 없다. 아지랑이 물은 물같이

5) 一陰非我所 名之爲空 如毗曇說。雖名爲空 體是有法 陰爲體故。(上同 P 609上)

6) 二假名法中 無有定性 名之爲空。如成實說。(上同 P 629上 ~ P 629下)

보여도 물이 아니다. 性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그 모습도 알 수 없다. 相과 性을 다 찾아볼 수 없다.⁷⁾ 이것이 空이다.

네째 妄想때문에 생긴 존재는 없다. 꿈에서 온갖 대상을 다 보지만 깨고나면 볼 수 없다. 실제로 깨어 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하다. 마음이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다.⁸⁾ 여기서 마음은 칠식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3.1 연기설 네번째 妄想緣起와 설명이 같기 때문이다.

다섯째 진여법은 그 바탕이 고요하다. 진여법은 그 바탕이 진정 존재 한다. 그러나 相과 性을 떠났다.⁹⁾ 이것이 空이다. 진여법의 바탕이 존재 한다는 점에서는 有이다. 相과 性을 떠났다는 측면에서는 空이다. 그러므로 空이면서도 有를 포함한다. 이것이 혜원이 말하는 空의 뜻이다. 이 앞의 네가지 空의 풀이는 아직 有를 말하고 있지 못하다. 혜원에게는 空이 有를 포함하느냐 않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2.2 四句회통

혜원은 四句를 사용하여 如來法身을 밝힌다. 먼저 有·無(空)·非有非無·有와 無에 집착해서는 여래법신을 밝힐 수 없다. 어떤이는 여래법신은 오직 空이요 有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고정된 空이다. 有를 동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여래법신은 오직 有이요 空이 아니다 고 한다. 이것도 고정된 有이다. 空을 매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옮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여래법신은 결정코 非有非無라고 한다. 이 또한 고정된 뜻이다. 혜원이 주장하는 非有非無는 집착을 넘어서자는 뜻이므로 여기에 집착하면 이것도 병이다. 어떤 이는 여래법신이 有의 측면과 無의

7) 三妄相法 虛寂無相 說之爲空 如陽焰水 水即無水 不但無性 近而求之 相亦不有 (上同 P 629下)

8) 四妄想法虛無說空 如夢所見 心外無法 (上同 P 629下)

9) 五眞如法體寂名空 體雖眞有 離相離性 故說空矣 (上同 P 629下)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 진정한 色과 心은 가지고 있으나 분별되는 여러 모습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有는 無가 될 수 없고 無는 有가 될 수 없으니 두 견해가 조화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여래법신은 이 四句를 벗어나서 결정코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도 고정된 입장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옳지 못하다.

여래법신은 위의 다섯가지 허물을 벗어나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이의 견해를 택하더라도 법신아님이 없다. 無와 인연해서 有를 말하니까 有라고 해도 고정된 有는 아니다. 有와 인연해서 無를 설하므로 無라고 해도 고정된 無는 아니다. 이 有와 無를 인연해서 非有非無를 말하니까 非有非無라고 말해도 고정된 뜻이 아니다. 이 非有非無를 인연해서 有와 無를 말하니까 有와 無도 고정된 뜻이 아니다. 이 四句로는 결정코 말할 수 없음을 인연하여 말할 수 없음을 말하니까 말할 수 없음도 고정된 뜻이 아니다. 불신(佛身) 뿐만 아니라 보리 열반 불성도 다 이와 같다.¹⁰⁾

이러한 회통도 결국은 空·有·非有非無에서 파생되었다. 空이 有를 포함하니까 空이면서 有이다. 그 어느 쪽에 침착해서는 안되므로 非有非無이다. 이것을 여래불신에 적용할 경우 고정되지 않는 四句로 전개된다. 그리고 고정되지 않는 정신을 살려서 四句를 벗어났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음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결국 空·有·非有非無는 회통으로 나아간다.

10) 有人宣說如來法身 唯空非有。此乃外道所立定空。宣說如來法身 唯有非空。此亦外道所立性有 非佛法身。有人復言 如來法身 定非有無。此亦外道所立定義 非佛法身。有人復言 如來法身 亦有亦無。有真色心 無於衆相。有不爲無 無不爲有。此亦外道所立有無 非佛法身。有人復言 如來法身 出於四句 定不加說。此亦外道所立第五不可說藏。如成實說 非佛法身。離此偏過 諸義過取 無非法身 即無說有 有非定有 即有說無 無非定無 即此有無說非有無 非有非無 亦非定性 即非有無 而說有無 當知有無 亦非定性。即此四句不可定說 名不可說。彼不可說 亦非定性。佛身既爾 苦提涅槃佛性等法 類皆同爾。(金陵刻經處 발행 維摩詰所說經義記 15권 6장 上~6장 下。 卍續藏經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

3. 唯識사상

혜원은 心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分別事識이다. 이것은 제육식이다. 둘째는 妄識이다. 이것은 제칠식이다. 세째는 眞識이다. 이것은 제팔식이다.¹¹⁾

칠식은 《大乘起信論》의 설명을 이용하면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根本不覺知心이니 無明이다. 두번째는 業識이다. 앞에 말한 근본불각지심에 의지해서 잘못된 생각이 갑자기 움직인다. 잘못된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業이라 한다. 세째는 轉識이다. 앞의 업식에서 생긴 잘못된 생각에 의지해서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거칠어진다. 그리하여 뒤집혀져서 헛된 바깥대상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轉이라는 말을 썼다. 네째는 現識이다. 앞의 전식에서 일으킨 헛된 대상에 의지해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다. 꿈에 본 모든 모습이 꿈꾸는 마음에 나타남과 같다. 그래서 現이라는 말을 썼다. 다섯째는 智識이다. 앞의 현식에서 이미 자기 마음에 헛된 대상이 나타났다. 이것을 나에게 맞는다. 어긋난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고 따진다. 이것이 智解(분별하는 작용)와 같으므로 智識이라 한다. 여섯째는 相續識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不斷識이라 하였다. 현식에 나타난 헛된 대상이 앞의 지식을 일으키고, 앞의 지식이 헛된 대상을 쫓기도 해서 서로 끊기지 않는다. 이 모습이 마치 바다의 파도를 결같다. 그래서 不斷識이라 한다. 또는 6식의 과보를 잘 간직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不斷識이라 한다.¹²⁾

11) 心識有八 相從爲三 一分別事識 謂六識心 二是妄識 謂第七識 三是眞識 謂第八識(正續藏經27권 P711上)

12) 一是根本不覺知心 謂無明地 二是業識 依前無明不覺 妄念忽然而動 動故名業 三是轉識 依前妄念 心相漸變 轉起外境 故名爲轉 四者現識 依前所起虛浪境界 覺現自心 如夢所起一切境界 現於夢心 故名爲現 五是智識 於己自心所現法中 分別達願染淨等別 似智解 故名智識 六相續識 論中亦名不斷識矣 妄境牽心 心隨妄境 相乘不斷 如海波浪 名不

이것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대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은 智識의 단계이다. 더러운 경계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마음은 더러운 경계를 보고 그 싫어하는 생각을 계속 연장한다. 이렇게 해서 일상인의 분별의식은 계속된다. 일상인에게 번뇌의 대상이 나타남은 無明 때문이다. 이 무명에 의해서 갑자기 잘못된 생각이 끈틀거린다. 이 잘못된 생각이 더욱 구체화되어 헛된 대상이 되고 이 헛된 대상이 우리앞에 등장한다. 그러면 이것을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고 분별하고 옳고 옳고 사는 것이 일상인의 모습이다.

이 육·칠·팔식에 대해서 心所의 有無를 살펴보면 팔식은 진식이므로 심소가 없고, 칠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근본불각지심 업식 전식·현식은 不相應染이다. 불상옹염이란 그 심식의 흐름이 미세하여 심과 심소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소가 없다. 지식 상속식은 相應染이다. 상옹염이란 그 심식의 흐름이 거칠어서 심과 심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소가 있다. 육식은 전부 심소가 있다.¹³⁾

3.1 緣起說

2.1에서 空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기설도 각각 그 다섯가지와 서로 연결된다. 연기설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事緣起이다. 이것은 육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둘째는 妄緣起이다. 이것은 칠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세째는 眞緣起이다. 이것은 팔식의 영역에서 생긴다.

14)

斷識，又能持於事緣乘果 令不斷絕 亦名不斷。（上同 P 711 上 ~ P 711 下）

13) 初六事緣 一向有數 想愛行等 雖與心王同在一時 作用別故。第八真心 一向無數 諸法同體 如虛空故。第七識中 識細六重已如上辨 是無明識乃至 相續 此六重中 根本四重 心識微細 諸心心法 未會別起 別相離得 不說有數 以無數故 論中名爲不相應染。…… 後之兩重 心纏用別 別相可得 說有證數 以有數故 論中名爲心相應染。（上同 P 713 下）

이 셋을 다시 두 가지씩 더 나누어서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事相因緣이다. 과거·현재·미래에 떠돌아 다니는 것은 진정한 나이거나 나의 것일 수 없다. 이것은 비담종의 주장이다. 이는 비담종에서 空을 풀이할 때, 오음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한 것과 같은 뜻이다. 둘째는 虛假因緣이다. 12인연은 모두 이름만 있을 뿐, 헛된 존재이다. 自性(본래의 성품)이 없다. 이는 성실종의 주장이다. 이 말은 성실종에서 空을 풀이할 때, 임시로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에는 고정된 성품이 없다 한 것과 같은 뜻이다. 세째는 妥相因緣이다. 12인연은 모두 헛된 존재이다. 아지랑이와 같아서 無相이 相이고 相이 無相이다. 아지랑이는 본래 없는 것인데 지금 눈에 보이고 있으므로 無相이 相이고, 아지랑이가 눈에 보인다고 해도 그 모습은 원래 없으니 相이 無相이다. 단지 相만 없음이 아니라 性도 없다. 이는 空을 풀이할 때, 세번째 妥相의 존재는 性과 相이 없다 한 것과 뜻이 같다. 네째는 妥想因緣이다. 12인연은 모두 妥心(칠식)이 일어나서 생긴다. 마음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꿈에 본 것은 단지 마음이 본 것이어서 마음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이는 空의 풀이중 妥想의 존재는 없다. 마음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한 것과 뜻이 같다.

다섯째는 眞用因緣이다. 여래장성은 원래 번뇌에 물들지 않았으나 물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십이인연이 생겨났다. 원래 번뇌에 물들지 않았는데 물든 것처럼 보이므로 물들어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空이다.

여섯째는 眞體因緣이다. 여래장성이 인연의 바탕이다. 이것을 인연이라 이름한다. 이것이 인연의 모습이기도 하다. 여래장성이 인연의 바탕이므로 有이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를 합쳐서 보아야 空이면서 有인 점이

14) 或分爲三 一事緣起 十二因緣 皆從六種事識所爲 二妄緣起 據妄統收 十二因緣 皆是七識
妄想心作 如夢所見 …… 三眞緣起 據眞統攝 十二因緣皆眞心作 如波水作, (上同 P 575
下)

나타난다.¹⁵⁾ 이는 空의 풀이중 다섯번째 진여법은 그 바탕이 고요하지만 그 바탕은 진정 존재한다고 말한 것과 뜻이 같다. 바탕이 고요하다는 것은 空이요, 바탕이 진정 존재한다는 것은 有이다.

3.2 無爲觀

혜원은 무위를 色·心·非色非心의 세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色의 측면이다. 나고 죽는 몸은 유위법이다. 모든 부처님의 항상 한 몸과 불성의 진실하고 항상한 몸등은 무위법이다. 불성은 心과 色을 아우르고 있는데, 불성이 色, 물질적 측면으로 나타나면 색이 無爲法이다.¹⁶⁾

혜원은 부처님의 몸과 불성을 色이라 생각한다.

如實色은 《열반경》에서 말씀하시되 '불성도 色이다.

色인 까닭에 눈으로 볼 수 있다'하였다. 《여래장경》에서 말씀하시되 '중생가운데 여래의눈귀등의 인식기관을 가지고 있음이 거푸집가운데 像과 같다'하였다. 이것들을 여실색이라 한다. 이것은 色性의 가르침이자 色事는 아니다.¹⁷⁾

《열반경》에서는 특이하게도 불성을 색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래장경》에서는 중생이 그 성품에 여래의

15) 級分有六. 於前寧識因緣之中 義別有二一寧相因緣 三世流轉 非我我所 如昆蟲說. 二虛假因緣 十二因緣 皆是名有虛假之有 無有自性 如成實說. 於前妄識因緣之中 義別亦二. 一妄相因緣 十二因緣 皆是虛幻妄相之有 如化如焰 無相爲相 相即無相 不但無相 性亦得. 二妄想因緣 十二因緣 皆妄心起 心外無法 如夢所觀 但是心見 心外無法. 於前真識因緣之中 義別亦二 一眞用因緣 如來藏性 不染而染 起十二緣. …… 二眞體因緣 如來藏性 是因緣體 名因緣 而此因緣相 (上同 P 575 下 ~ P 576上)

16) 生死之色 是其有爲 諸佛常色乃至 佛性眞常色等 名曰無爲. (上同 P 713上)

17) 如實色者 如涅槃說 佛性亦色 亦是色故 可以眼見 又復如彼如來藏經說 衆生中具足如來眼耳等根 如模中像 此等名爲如實色也. 此乃是其色性法門 而非色事. (上同 P 743下)

눈귀등의 인식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식색은 空·有·非有非無의 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색의 바탕은 비록 색이나 색의 모습은 없다. 그래서 空이다. 색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聖人은 형상없는 법신을 얻는다. 색의 바탕이 色이기 때문에 성인은 모든 인식기관을 온존케 할 수 있다. 이것이 有이다. 또한 색의 성품이 연기하여 세계가 이루어 졌으므로 성인이 여실색을 중득하면 어떠한 緣에도 다 나타난다. 불성이 연기하여 대상세계가 이루어 졌으므로 이 불성을 체득하면 전체세계와 나는 不二의 관계에 있다. 우주와 한 몸이 된다. 그러면 대상세계의 어떤 사건에도 성인은 자기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非有非無이다. 空에도 有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어떤 緣에도 다 나타날 수 있는 中道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¹⁸⁾

둘째 心의 측면이다. 妄心은 유위이다. 모든 부처님의 항상된 마음과 팔식인 불성의 마음등이 무위이다.¹⁹⁾ 이것은 불성이 心의 측면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위인 여실심은 空·有·非有非無의 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여실심은 바탕이 心이나 분별함이 없다.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성인은 분별하는 지식이 영원히 없다. 이것이 空이다. 여실심은 마음의 근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성인은 진실한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有이다. 불성이 연기하여 대상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인이 이 마음을 되찾으면 우주전체를 다 안다. 이것이 非有非無이다.²⁰⁾

세번째는 非色非心의 측면이다. 비담종에서 말한 14가지 불상옹행이 유위법이다.²¹⁾

18) 以彼體雖是色 而無色相 無色相故 聖人證得法身無形。體是色故 聖人證得具足諸根 又是色性緣起門故 聖人證得無緣不現。(上同 P 743 下)

19) 二就心說。妄心有爲 諸佛常心 乃至八識佛性心等 名曰無爲(上同 P 713 上)

20) 體雖是心 而無分別 無分別故 聖人證得神知永亡。是心性故 聖人證得具知如實慧。又是知性緣起門故 聖人證得於一切法無不覺了。(上同 P 744 上)

21) 第三約就非色心說。如毘曇中 所辨十四不相應行 名曰有爲 論明四相名字句等 是十四也。(上同 P 713 上)

그 내용은 得은 有情(생명체)에게 어떠한 法을 얻게 하는 세력으로서 비생명체에는 통하지 않는다. 非得은 어떠한 法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의 세력이다. 同分은 同은 비슷하다는 뜻이요, 分은 원인의 뜻이다. 인간과 인간이 비슷하고 다리 네개인 동물과 다리 네개인 동물과 서로 비슷하게 하는 원인력이다. 無想果는 無想定을 닦은 因에 의해서 無想天에 태어나는 과보를 말한다. 오백대겁동안 심심소의 작용을 그치게 하는 세력이다. 無想定은 無想天에 태어나는 因으로서 선정중에 심심소의 작용을 없애게 하는 세력이다. 滅盡定은 불교의 聖者가 닦는 선정으로서 이 선정에 들어가면 모든 심심소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다. 命根은 생명체가 어떤 기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세력이다. 목숨을 말한다. 生·住·異·滅은 유위법을 유위답게 하는 것이다. 生은 유위법을 미래에서 현재로 이동시키는 세력이다. 住는 유위법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세력이다. 异는 유위법을 손상시키는 세력이다. 滅은 유위법을 현재에서 과거로 파괴시키는 세력이다. 名은 언어의 요소이다. 이 문자가 만인에게 다 같은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이다. 句는 두개의 名 그이상을 합성해서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文은 글자로서 이것만으로서는 어떠한 의미도 표현할 수 없다. 名·句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니 名句 文의 세 종류가 사물과 진리를 이해토록 하는 세력을 갖추고 있다.

22)

虛空·擇滅·非擇滅 그리고 진여 제일의공이 무위법이다.²³⁾ 허공은 다른 것에게 장애되지 않고 다른 것을 장애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여 자유자재하게 행동케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간적 실체이다. 택멸은 無滅의 지혜력으로써 四諦의 진리를 골라서 번뇌를 여의면 거기서 생기는 무루의 존재이다. 비택멸은 연(緣)을 결여해서 생겨나지 않

22) 金東華著 《俱舍學》 P 98 ~ P 104

23) 虛空數滅及非數滅乃至 真如第一義空 通攝悉是非色心中無爲法也. (正法藏經 27권 P 713 上)

는 법을 말한다. 안식이 적색만을 주시하면 기타의 색은 현재에 나타나지 못하고 과거로 들어간다. 이 기타의 색이 비택멸이다.²⁴⁾

혜원의 불성관은 色과 心을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무위법도 色과 心에서 나옴은 당연하다. 거기에 非色非心을 보태서 무위법을 밝힌다. 세친은 5위 100법으로 모든 존재를 분류하는데 그 중 무위법은 허공·택멸·비택멸·不動·相受滅·眞如이다. 不動은 제3선정에서 번뇌를 여의고 제4선정으로 넘어가면 오직 捨受만이 있는 상태이다. 想受滅은 想受심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멸진정에 나타난다.²⁵⁾ 이 무위법은 變無爲라고 할 수 있으므로 心이 무위법이 될 수 있다.²⁶⁾ 그러나 色이 무위법이 된 것은 혜원유식사상의 특징이다.

3.3 인식과정

혜원의 유식사상에는 관념론적 성격이 없다. 만역 유식사상을 오직 마음만이 대상세계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관념론이다. 혜원은 대상세계의 존재를 인정한다. 앞에서 말한 空·有(假)·非有非無(中)에서 有(假)의 측면이 대상세계의 인정과 서로 연결된다. 다만 번뇌나 번뇌를 유발시키는 모습을 만드는데 마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금·은·보석따위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한다. 일상인은 그것을 못가지면 한이 되고,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한다. 여기서 번뇌를 내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금·은·보석따위에 크게 마음을 써서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다.

혜원은 我見·我想·妄心·妄法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곳에서, 물·허공의 달·물에 비친달의 비유를 이용한다. 물에 허공의 달이 비쳐

24) 金東華著 《俱含學》 P 104 ~ P 107

25) 金東華著 《唯識哲學》 P 178 ~ P 180

26) 金東華著 《唯識哲學》 P 181

서 물에 달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때 물에 비친 달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의 달은 실제로 존재한다.

혜원은 이 비유를 가지고 我見·我想·妄心·妄法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妄法을 일으키는 경우부터 살펴본다. 불성이 연기하여 이루어진 오음 십이입 십팔계와 팔식 가운데 법진종자가 허공의 달이다. 유식에서는 종자가 아뢰아식의 훈습을 받아서 我와 法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法(대상세계)를 만드는 종자를 법진종자라 한다. 만약 법진종자만이 대상세계를 만든다 하면, 법진종자는 팔식에 속하므로 팔식이 대상세계를 만드는 셈이다. 이렇다면 관념론이다. 그러나 혜원의 유식사상은 불성이 연기하여 이루어진 오음·십팔계·십이입을 인정한다. 오음에는 色이 물질이고, 십이입에는 색·성·향·미·촉이 물질적 측면이다. 십팔계는 십이입에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 의식을 더 추가한 것이므로, 십이입과 같이 색·성·향·미·촉이 물질적 요소이다. 이 물질적 요소는 불성이 연기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空이다. 불성자체는 엄연히 존재하므로 有이다. 이 불성이 연기하여 이루어진 오음·십이입·십팔계가 空이면서 有임을 관조하면 非空非有인 中이다. 혜원의 유식사상이 관념론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空·有·非有非無에 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허공의 달은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오음 십이입 십팔계와 팔식 가운데 법진종자이다. 妄心이 물이다. 妄法(잘못 마음에 비추어진 대상)이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이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오음 십이입 십팔계와 팔식 가운데 법진종자가 妄心에 작용하여 일상인이 헛된 대상을 인식한다. 일상인이 인식하는 대상은 헛된 것이다. 그러나 불성이 연기한 오음·십이입·십팔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 점에서 볼 때, 혜원은 대상세계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다. 일상인이 인식하는 대상은 잘못된 것이므로 부정하지만,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대상세계는 인정한다.

妄法을 일으키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칠식의 단계

이다.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오음·십이입·십팔계와 팔식의 법진종자가 작용하여 칠식에 오음·십이입·십팔계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 이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이다. 둘째는 육식의 단계이다. 칠식속에 나타난 잘못된 모습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육식에 잘못된 대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육식단계에서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이다.²⁷⁾

일상인이 대상세계를 봄이 잘못이라는 것은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대상세계를 그대로 보지못하고, 칠식단계에서 한번 대상세계를 잘못 변형시키고 그것을 다시 근거로 해서 육식단계에서 다시 한 번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인은 이런 잘못된 인식구조속에서 올고 옷는 존재이다. 이런 이유로 대상세계의 실재성을 무시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대상세계를 부정함은 아니다.

다음은 妄心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본다. 本讌(팔식)과 본식 가운데 妄想종자가 허공의 달이다. 혜원은 물과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은 설명하지 않았다. 妄心이 나타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칠식의 단계이다. 팔식과 팔식의 妄想종자가 妄相의 허위존재에 작용하여 妄想心이 생긴다. 둘째는 육식의 단계이다. 칠식단계에서 생긴 妄想心이 事相의 오음·십이입·십팔계에 작용해서 事讌心이 생긴다. 이것이 육식단계의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이다.²⁸⁾

다음은 我見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본다. 오음이 물이고 팔식과 팔식 가운데 아견종자가 허공의 달이고 아견의 마음이 물에 나타난 달의 모습이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칠식의 단계이다. 팔식과 팔식의 아견종자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妄想의 오음에 대해서 我妄想을

27) 若起妄法 妄心爲水 妄法如似水中之月 於此門中 佛性緣起陰界入法 及本讌中 無始熏習法臺種子 如空中月 由依此本 妄想心中 陰界入等虛偽相現 如水中月 此復爲本 如空中月 事讌心中 陰界入等事相法起 如水中月 (上同 P 684 上)

28) 本讌之心 及本讌中 無始熏習妄想種子 如空中月 由依此本 於彼妄相虛偽法中 心想見等 妄想心生 如水中月 此復爲本 如空中月 於彼事相陰界入中 事讌心生 如水中月 (上同 P 684 上)

내게 한다. 妄想의 오음은 칠식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두번째는 육식의 단계이다. 일상인은 妄想의 오음에 대해 我妄想을 낸 것을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事相의 오음에 대해 我人見을 일으킨다. 29) 事相의 오음에서 事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 흐름이 거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일상인이 我見을 일으키는 경우를 다시 설명하면 우선 칠식이 대상으로 삼는 미세한 육체에 대해서 我라는 것은 존재한다고 妄想을 일으킨다. 이것은 미세한 의식의 흐름이어서 일상인은 알기 어렵다. 깊은 선정수행을 통해서 우리 인식구조를 파헤친 결과,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다. 일상인은 칠식단계에서 일으킨 妄想에 근거해서 실제로 인식가능한 육체에 대해서 나다 남이다 하는 견해를 일으킨다. 나다 남이다 하는 분별의식속에서 남을 해치거나 죽이기도 한다. 또 선을 행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我見이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악이 모두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다음은 我想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본다.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我와 팔식 가운데 아진종자가 허공의 달이다. 妄心이 물이다. 오음이 모여서 형성된 我·人の 모습이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我와 팔식의 아진종자가 妄心에 작용하여 있지도 않는 我·人の 모습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칠식의 단계이다.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我와 팔식의 아진종자가 칠식(我妄想)에 작용하여 妄相의 오음으로 이루어진 人の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칠식단계에서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이다. 둘째는 육식의 단계이다. 칠식단계에서 나타난 妄相의 오음으로 이루어진 人が 이번에는 허공의 달과 같이 확실한 실재이다. 이것이 육식에 작용해서 나다, 남이다 하는 분별의 모습이 등장한

29) 若起我見 險法如水 我見之心 如水中月 於此門中 本體之心 及本體中 無始薰習我見種子 如空中月 由依此本 於彼妄想五陰法中 我妄想生 如水中月 ……此復爲本 如空中月 於彼妄想五陰法中 我人見起 如水中月. (上同 P 683 下)

다. 30) 我想을 일으키는 경우에서는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我를 인정한다. 이 我도 연기하고 있는 점에서는 空이요, 我의 자체가 불성이라는 점에서는 有이다.

3.4 번뇌의 발생과 소멸

혜원의 설명을 살펴보기 전에 번뇌의 발생에 대해서 《대승기신론》의 설명을 살펴보자. 《대승기신론》에서는 三細六相로 설명한다.

첫째 無明業相이다. 不覺에 의지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을 業이라 한다.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면 苦가 있다.

두번째는 能見相이다.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는 주관(能見)이 성립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보는 주관도 없다.

세번째는 境界相이다. 보는 주관(能見) 때문에 헛된 경계가 나타난다. 보는 주관이 없으면 헛된 경계도 없다.³¹⁾

마음이 진리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하지 못하고 흐트러짐이 생긴다. 그 흐트러짐 때문에 헛된 주관과 헛된 객관이 나타난다. 먼저 헛된 주관이 마음의 흐트러짐에 의해서 생겨나고, 헛된 주관에 의해서 헛된 객관이 생겨난다. 이것이 삼세(三細)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다음은 육추(여섯가지 거친 번뇌)가 생기는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智相이다. 앞의 경계상에 나타난 헛된 객관에 의지해서 마음이

30) 苦起我想 妄心如水 五陰集用我人之相 如水中月 於此門中 佛性緣起集用之我 及本體中 無始薰習我塵種子 如空中月 由依此本 我妄想中 妄相五陰集用人現 如水中月 此復爲本 如空中月 於彼事體我見心中 五陰集用我人相現 如水中月 (上同 P 683 下 ~ P 684 上)

31) 云何爲三 一者 無明業相 以依不覺故 心動 說名爲業 覺即不動 動即有苦 果不離因故
(大正 修大藏經 32권 《大乘起信論》 P 577 上)

二者 能見相 以依動故 能見 不動則無見

三者 境界相 以依能見故 境界妄現 離見 則無境界

분별을 일으켜 애착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한다.

둘째는 相續相이다. 앞의 지상의 분별에 의지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일으킨다. 이런 분별심(覺心)이 생각을 일으켜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세째는 執取相이다. 앞의 상속상에 의지해서 헛된 경계를 생각한다. 그리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에 머물러서 마음이 집착을 일으킨다.

네째는 計名字相이다. 앞의 허망한 집착에 의지해서 말그대로 대상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는 起業相이다. 앞의 名字에 의지해서 이름그대로 대상세계가 존재한다고 집착하고 여러가지 업을 짓는다.

여섯째는 業繫苦相이다. 앞의 업때문에 과보를 받아서 자유스럽지 못하다.³²⁾

일상인은 진리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때문에 헛된 주관과 객관이 등장한다. 이 헛된 객관을 분별해서, 나의 뜻에 맞으면 애착하고 나의 뜻에 거슬리면 증오한다. 애착하면 즐거움을 낳고 증오하면 괴로움을 낳아서, 이런 분별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 이미 생긴 즐거움과 괴로움에 마음이 엉매여서 집착을 일으킨다. 이 집착은 개념과 글자로 이어져서 말 그대로 대상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말을 찾아 해매면서 여러가지 업을 짓는다. 업을 지었으므로 과보를 받아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것이 육추이다.

앞에 금은보화가 있다고 하자. 일상인은 진리에 밝지 못하므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진다. 이 흐트러진 마음때문에 헛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다. 그래서 금은보화는 좋은 것이라고 분별하고

32) 一者 智相 依於境界 心起分別 愛與不愛故。
 二者 相續相 依於智故 生其苦樂 覺心起念 相應不斷故。
 三者 執取相 依於相續 緣念境界 住待苦樂 心起著故。
 四者 計名字相 依於妄執 分別假名言相故。
 五者 起業相 依於名字 等名取著 造種種業故。
 六者 業繫苦相 以依業愛報 不自在故。(上同 P 577 上)

즐거운 마음을 일으켜 그 즐거움에 집착한다. 금은보화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에만 집착하여 금은보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한다. 결국 일상인은 그 업에 위태인 삶을 살수 밖에 없다.

혜원은 번뇌의 발생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단계에서 미세한 번뇌가 생기는 것은 妄想때문이다. 이 妄想때문에 헛된 존재가 생겨난다. 예를 들면 잠자기 때문에 꿈에서 헛된 여러세계를 경험한다.³³⁾

《대승기신론》의 삼세육추중 업상에 해당한다.

둘째단계는 妄想이 첫째단계에서 생기니까, 여기서는 마음이 그 妄想에 집착해서 그것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이름을 지울려는 마음(施名心)이 생겨난다. 이름을 지울려는 마음이 생겨난 다음에 名字(개념과 문자)가 생긴다.³⁴⁾ 삼세육추의 전상과 현상에 해당한다. 무엇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는 마음이 전상이고, 名字가 생겨남이 현상이다.

세째단계는 名字가 둘째단계에서 생기니까, 마음이 그 名字가 가리키는대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 名字가 가리키는 대상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집착한다. 이것을 覺觀(개념화 작용)이라 한다. 예를들면 토끼 뿐·거북이 텔하면 마치 그것이 말 그대로 존재하는 듯이 생각한다. 실제로는 이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覺觀이 일어난 다음에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 이것을 言說이라 한다.³⁵⁾ 삼세육추중에 지상·상속상·집취상·계명자상에 해당한다. 覺觀이 일어남은 지상·상속상·집취상에 해당한다. 지상에서 집취상까지는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여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내어서 집착하기 때문이다. 覺觀이 일어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은 계명자상에 해당한다.

33) 情相之興 原由妄想 以妄想故 妄想法生. 如因眠睡 夢境界生 此是初對 (弘讚藏經 27권 P 679 下)

34) 妄想既生 心取爲有 爲之施名 施名心起. 名心起已 名字隨生 此是兩對. (上同 P 679 下)

35) 名字既生 心隨名字 取著諸法 名爲覺觀. 覺觀起已 發動口言 名爲言說 此是三對. (上同 P 679 下)

네째단계는 세제단계에서 言說이 생기니까, 그 말하는 그대로 가리키는 대상물이 있다고 짐작한다. 그래서 “말(言說)을 길로 삼고 마음이 그 말의 길을 걷는다” 한다. 말로 표현되는 대상물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보고 마음이 그 표현된 대상물에 짐작하여 헛된 세계로 달려간다. 그 결과 모든 좋고 나쁜 경계가 나의 마음에 다가온다.³⁶⁾ 삼세육추증 기업상과 업계고상에 해당한다.

서양철학에서도 언어의 부정적 기능에 주목하는 학자가 있다. 비트겐슈타인(1889~1951)은 언어에 의하여 마련된 몇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말로써 하는 언어 놀이를 검토하여 그 말이 거기서 갖는 실제적 쓰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⁷⁾ 그는 언어놀이이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놀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고찰해 보자. 나는 판놀이 카드놀이 꿩놀이 올림픽놀이 등을 의미한다. 그것들 모두에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 “공통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놀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도리어 그것들 모두에 공통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라.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 놀이들을 보면 당신은 그것들 모두에 공통된 어떤 것은 보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서 유사성과 연관성과 일련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 생각하지 말고 보라!³⁸⁾

놀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거기에 공통된 그 무엇이 있다고 짐작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있는 것은 유사성과 연관성이다. 각각의 놀이는 서로 유사성과 연관성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말에 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가족의 경우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의 여러가지 유사성들,

36) 言說起己 復隨言說 取所說法 是則言說以之爲道 心以爲行 由心取法 達順等境一切應心。此是四對。(上同 P 679 下)

37) 조지 페처지음 朴模植옮김 〈비트겐슈타인의 哲學〉 P 346 ~ P 347.

38) Ludwig Wittgenstein 저 C. E. M Anscombe 역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66절.

체구, 용모, 눈의 색깔, 걸음걸이, 기질등이 같은 방식으로 겹치고 엇갈리고 있다.³⁹⁾ 이것이 유사성이다.

다음은 번뇌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혜원은 번뇌의 소멸도 네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단계는 진정한 이치를 깨달아서 妄想이 본래 없음을 잘안다. 妄想이 본래 없음을 알기 때문에 妄想이 생겨나지 않는다. 妄想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妄相도 생기지 않는다.⁴⁰⁾

둘째단계는 첫째단계에서 妄想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妄想을 진짜 있다고 집착하여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름을 붙이려는 마음(施名心)이 없어진다. 이름을 붙이려는 마음이 없어지므로 名字가 생기지 않는다.⁴¹⁾

세째단계는 둘째단계에서 名字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名字가 가리키는 대로 대상물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覺觀心(개념화 작용)이 그친다. 覺觀心이 그치므로 말(言說)도 생기지 않는다.⁴²⁾

네째단계는 말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물이 진짜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경지를 "말이 끊어지니 마음도 곧 없어진다" 한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의 경계가 모두 사라진다. 이것을 열반을 얻었다 한다.⁴³⁾

4. 結 語

39) 上同 66절 ~ 67절.

40) 契體如實 達妄本無. 由知無故 妄相不生 妄不生故 妄想不起 此初對滅 (*續藏經 27 P 679 下)

41) 相不生故 不復取相 為之施名. 名心則盡 名心盡故 名字不起 此兩對滅 (上同 P 679 下)

42) 名不起故 不復聽名 取著諸法 覺觀心息 覺心息故 不起言說. 言說亦止. 此三對滅. (上同 P 679 下)

43) 言說止故 不復聽言 取所說法. 當知 此則言語道斷 心行隨滅. 心行滅故 遠順等境一切皆息. (上同 P 679 下)

본 논문에서는 정영사 혜원의 사상을 《유마경의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혜원의 사상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의 불성에 대한 견해이다. 그가 이해한 불성은 주관과 객관을 다 망라한다. 불성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眞識心 法身으로 나타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모든 존재의 바탕(體)이다. 이 불성의 객관적인 면을 분석한 것이 2장의 空·有·非有非無이고, 주관적인 면을 분석한 것이 3장의 유식사상이다.

혜원은 진여법이 空·有·非有非無의 세 측면을 가진다고 말한다. 空은 如, 有는 法性, 非有非無는 實際라고 부른다. 진여법은 모습(相)과 性을 떠났기 때문에 空이다. 모든 불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不空, 즉 有이다. 有와 無가 한 몸이기 때문에 非有非無이다.

이 가운데에서 空에 대해 혜원은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첫째 비담종의 견해이고, 둘째는 성실종의 견해이고, 세째는 相과 性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空의 뜻이고, 네째는 모든 대상은 제칠식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空의 뜻이고, 다섯째는 空이 有를 머금고 있다고 하였다. 혜원이 말하고자 하는 空은 다섯번째 空의 뜻이다.

空·有·非有非無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四句회통으로 연결된다. 空은 有를 머금고 있으면서 또한 空 有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신을 有·無(空)、有와 無、非有非無의 四句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또 이 四句를 벗어나 있어 말할 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3장에서는 혜원의 유식사상을 살펴보았다. 혜원은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分別事識이니 육식이다. 둘째는 妄識이니 칠식이다. 세째는 眞識이니 팔식이다. 이 가운데 칠식은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대승기신론》의 설명에 의거한 것이다. 첫째는 根本不覺知心이요, 둘째는 業識, 세째는 轉識, 네째는 現識, 다섯째는 智識, 여섯째는 相續識이다.

이 세 가지 讀이 각기 연기한다. 육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연기가 事緣起이요, 칠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연기가 妄緣起요, 팔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기가 眞緣起이다. 이 세 연기를 다시 두 가지씩 더 나누어서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事相緣起, 둘째는 虛假緣起, 세째는 適相緣起, 네째는 妄想緣起, 다섯째는 眞用緣起, 여섯째는 眞體緣起이다. 다섯째와 여섯째를 합쳐보아야 空이 有를 머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眞用緣起는 空을 뜻하고 여섯째 真體緣起는 有를 뜻한다.

혜원의 유식사상은 無爲觀에서 그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세친은 무위법으로서 여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혜원은 거기에다 色을 더 추가한다. 유식사상을 주로 하면서도 색을 무위법으로 본다. 이는 그가 본 불성이 주관과 객관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불성의 주관적인 측면이 眞識心이므로 心이 무위법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성의 객관적인 측면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므로 색을 무위법이라 본 것이다. 그리고 무위법인 如實色과 如實心은 空·有·非有非無의 세 측면을 가진다.

이미 무위관에서 색을 무위법으로 인정했으므로 혜원의 유식사상은 관념론적 색채가 없음을 알 수 있지만, 인식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이것은 더욱 분명하다. 혜원은 我見·我想·妄心·妄法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곳에서 물 허공의 달 물에 비친 달의 비유를 사용한다. 허공의 달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물에 비친 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혜원이 妄法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허공의 달은 불성이 연기하여 이룬 오음·십이입·십팔계와 팔식기운데 법진종자이다. 물에 비친 달은 妄法이다. 오음·십이입·십팔계는 객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상세계가 실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혜원유식사상이 유식사상이면서도 객관대상을 인정하는 온전함이 발휘된다.

혜원은 번뇌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대승기신론》의 분석을 이

용해서 설명한다. 번뇌의 발생은 네 단계로 설명된다. 첫째단계는 妄想때 문에 헛된 존재가 생겨나고, 둘째단계는 名字가 생기고, 세째단계는 言說이 생기고, 네째단계는 言說에 집착해서 온갖 경계가 나의 마음에 다가온다.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은 첫째단계에서 妄想이 생기지 않으므로써 둘째단계에서는 名字가 생기지 않고, 세째단계에서는 言說이 생기지 않고 네째단계에서는 열반을 얻는다. 혜원은 번뇌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名字와 言說에 주목해서 설명하였다. 이 점도 그의 유식사상의 특징이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혜원은 유식사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관념론에 빠지지 않았다. 이 점이 그의 사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